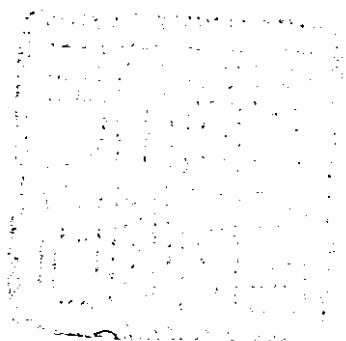


日本の 對北韓政策의 分析 및 展望

1974. 11.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機關：漢陽大學校
研究責任者：柳世熙

目 次

一. 序 言	I
二. 日本의 对北韓政策의 推移	3
三. 日本의 对北韓接近의 推進要素	23
四. 对北韓接近의 抑制要素	32
五. 展 望	48
註 釈	52

一 . 序 言

「닉슨」독트린으로 集約되는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東西和解는 東西對立의 代表的 焦點을 이루어왔던 極東에 있어서의 從來의 秩序에 變化를 이르게 되었으며 이것은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에도 根本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었다. 最近에 問題가 되었던 韓半島狀況에 대한 「기무라, 日本外相의 親北韓的인 發言은 個人的인 意見을 나타낸것이라기 보다는 北韓과의 本格的인 接觸을 모색하는 日本政府의 立場을 反映한것에 不過한 것이다.

이와같은 日本의 態度는 지금까지 韓國과 日本과의 緊密한 關係를 이루어왔던 點에 비추어 日本을 美國다음으로 友邦으로 看做해 온 韓國으로서는 背信的行爲로서 규탄을 하게되나 問題는 感情만으로 解決되는것이 아니라 國際政治의 冷酷性에 비추어 現實을 現實대로 把握하고 이에대한 代案을 마련하는 道義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과연 日本의 對北韓政策이 지금까지 어떻게 變化되고 있으며, 어떠한 要因들이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에의 接近을 推進 또는 抑制하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앞으로의 日本의 對北韓政策의 發展 乃至 推移를 予見하고 이에대한 韓國으로서의 對策을 講究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우선 다음 章에서는 從前까지의 日本의 對北韓政策의 內容을 檢討하고 이와같은 政策이 最近에 와서 어떠한 樣相을 띠우고 變化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章에서는 特히 日本의 態度 變化를 가져오게한 要因中 國際政治的인 要因에 대하여 言及하겠다.

第3章에서는 日本의 對北韓政策의 轉換을 가져오게한 國內的要因, 다시 말해서 日本으로하여금 北韓에의 接近을 推進하게 만드는 要因들을 大略 네가지 側面에서 考察하고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에의 接近을 抑制하는 要因들에 대하여서는 따로 第4章에서 論議케 될 것이다. 接近을 抑制 乃至 어느線에서 限定케하는 要因들은 大略 일곱가지로 列擧될 수 있을것 같다.

本稿에서 指摘되지는 않으나 日本의 對北韓 接近에 肯定的으로 或은 否定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因子들이 勿論 있을 것이다. 第3章과 4章에서 論議될 要因들은 수 많은 要因들 中에서 다만 筆者에게 重要的 것으로 認知된것에 不過함을 부연해 둔다. 第3章과 第4章에서의 諸要因들의 分析을 土臺로 끝으로 第5章에서는 앞으로 日本이 取할 수 있는 具體的行動을 몇가지로 假定하고 各 境遇에 있어서의 實効性和 制約性 및 우리로서 取할 수 있는 對策으로는 어떠한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檢討함으로써 日本의 對北韓政策을 展望하고자 한다.

二. 日本의 對北韓政策의 推移

二次世界大戰以後의 日本의 外交政策의 基本性格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 要素로는 두가지를 指摘할 수 있다. (一) 하나는 日本이 敗戰國 이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어느面에서 보면 前者에서 나오는 것이기 는 하나 (二) 日本의 非武裝을 一種의 國是로서 憲法上에 明記하였다는 點이다. 勿論 이와같은 두가지 要素는 時間이 經過함으로써 그 意味가 變質되었기는 하나 적어도 戰後에 日本外交政策의 方向 設定期에 있어서 絶對的인 作用을 하였다는 點에서 이를 배제하고는 日本外交政策의 基本性格을 理解할 수 없는 것이다.

흔히 該간의 日本外交政策의 一般性格을 「經濟優先主義」나, 「政經分離主義」나, 「自己中心的 孤立主義」나 「實利外交」나 하는 말로 特徵지우는데 이와같은 性格은 그 根源을 日本人 自體의 國民性에 連結시키는 解釋도 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위에서 指摘한 두가지 要素에서 說明하는것이 妥當할 것이다. 왜냐하면 國際政治의 現實에서 自國의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을 最大化하려는 努力은 비단 日本 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傾注해오는 바이며 다만 日本으로서는 「政經分離」或은 「實利外交」가 日本이 처해진 狀況에서 日本의 國家利益을 最大化하는 最善의 方法이라는 判斷下에서 取해진 措施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敗戰國과 非武裝이라는 두가지 要素가 實際로 어떠한 形態로 日本의 對外政策乃至 對外關係에 나타났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선 「敗戰國」이라는 立場에서 보면 그것이 2次大戰後의 日本

으로 하여금 특히 1956년의 UN에 가입되기까지는 對外國關係에 있어서 低勢의 位置를 甘受하도록 만든 一面도 있으나 戰後의 台獨한 兩極體制라는 國際政治의 狀況下에서는 반드시 이 와같은 立場이 不利한 것만은 아니었다. 即 敗戰國인 日本으로서는 占領國인 美國에 따라야 되었지만 이와같은 受動的立場은 「外部의 힘의 依하여 強要된 立場」으로 해석되어 共產陣營으로 부터도 日本이 比較的 敵對視되는 結果를 가져 왔던 것이다. 한편 日本人들 自體만 하더라도 明治維新以後 前戰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루어진 諸般體制, 特別히 經濟體制로 말미암아 戰後의 兩極體制에 있어서 西方陣營에 加担하지 않을 수 없는 內的 條件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戰後의 親西方的 立場을 마치 美國과의 戰爭에 걸기 때문에 美國의 命令에 服從하고 있지 않는다는 式의 被害意識의 수로감의 親西方的 立場을 取하고 있는 것이 單純히 美國의 依하여 強要된 結果로서만 生發하고 은연중에 反발하는 傾向이 없지 않았다. (註1) 따라서 政治的으로는 美國側에 加担하지만 經濟的으로는 可及的이면 美國이 要求하는 比두리를 벗어나 共產陣營에도 交易를 하고자하는 實利追求的의 態度가 엿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政經分離의 의한 實利追求的의 日本 對外政策形成의 크게 作用한 또 하나의 要素는 憲法 第9條의 明示된 「非武裝」主義이다. 原來 「國際紛爭의 解決手段으로 戰爭의 도발, 武力의 使用 또는 武力의 威脅의 禁止는 물론 「陸海空軍 또는 다른 兵器 또는 戰爭遂行能力」의 創設을 禁止한 憲法 第9條의 非武裝」

條項은 다른 條項들과 마찬가지로 「 맥아더 」將軍에 의하여 이끌어
 진 聯合軍最高司令部 (The General Headquarters of 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에 의하여 立案된 것으로서 (註2)
 日本人들 스스로의 意思에 의하여 마련된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極東에 있어서 東西陣營間의 勢力均衡을 위한 美國의 負擔을 日本
 이 分担해 주기를 願하는 現在의 美國의 立場을 감안할때 美國은
 本條項을 삽입함으로써 자승자박의 失策을 이미 오래前에 저지른
 것이다. (註3) 再武裝禁止의 立法化는 1946年 11月 現行憲法이
 公布되면서 부터, 特히 日本이 「 샌프란시스코 」條約의 締結을 契機
 로 1952年에 獨立이 되면서부터 民族主義를 표방하는 左翼勢力으
 로 부터 더욱 批判의 對象이 되어왔으나 左翼系列과 自由主義의
 色彩를 띠운 系列은 이를 계속 支持하여 왔으며, 戰爭의 참화,
 特히 核武器의 被害를 겪은 日本國民들로서는 大体로 再武裝禁止는
 바람직 한것으로 認定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自民黨政府는
 1964年까지 「 自体防禦를 目的으로 하여 創設」된 自衛隊의 海外
 派兵을 違憲으로 表明하여 왔으며, 現在까지, 核武器의 開發은 考慮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公式的으로는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再
 武裝禁止라는 一種의 「 神話」때문에 日本이 어느나라에 있어서나
 外交政策의 가장 큰 目標인 安保를 (註4) 포기한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再武裝禁止條項을 逆利用하여 「 영가의 安保」로 代置하였
 을 뿐이며 「 영가의 安保」를 可能케 한 實際的 要因은 戰後에
 登場한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兩極體制였다.

極東에 있어서 共產主義의 威脅을 저지하기 위하여 日本에 設置된 美國의 戰略的基地와 核雨傘 밑에 日本人들 自身은 平和主義를 단각 할 수 있었으며 國防費에 充當되어야 했을 莫大한 費用은 經濟發展에 轉用할 수 있었던 것이다.

以上으로 볼때 敗戰國이라는 位置와 再武裝禁止條項은 日本이 分明히 西方陣營의 一員임에도 不拘하고 一種의 中立的立場을 띠우게 만든 要素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日本對外政策成立의 基本的 바탕에 대한 理解를 基底로 지금부터 日本の 對北韓政策의 推移過程을 考察하기로 한다.

日本の 對北韓政策은 恒常 大韓民國이라는 存在를 念頭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對韓半島政策의 一環으로 보는것이 오히려 더 正確할 것이다. 1971年 2月 「닉슨」 美國大統領의 北京訪問으로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多極体制의 本格的 開幕이 認知될때 까지의 日本과 韓半島와의 關係는 우선 接觸과 交涉이라는 面에서 볼때 大略 다음의 세가지의 時期로 区分될 수 있지 않을까 生覺된다.

1) 1945年 8月~1951年 9月 交涉空白期

이 期間은 日本이 聯合軍最高司令部의 統治 밑에 있었기 때문에 韓國과의 關係樹立에 日本이 神經을 쓸 余有가 없었던 時期이다. 우선 敗戰에 따른 複雜한 國內問題와 聯合國들과의 關聯된 問題들에 日本은 一次的으로 얽매일 수 박게 없었고 한편 韓國으로 서도 戰後의 南北分斷에 따른 諸般國內問題의 解決에 沒頭할 수 박게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韓日關係 正常化의 必要性을 兩者

가 느끼게 된 것은 1948年以後부터였다. 兩國關係 正常化를
 考慮로 볼 때는 主要因은 戰後에 있어서의 兩極冷戰體制의 出現 때문
 이었다.

戰後에 있어서 美國의 一次的關心은 廢墟地域의 復旧, 敗戰國과의
 平和條約 締結 등의 戰後處理問題 였는데 이것은 東歐에 있어서의
 美聯勢力의 膨脹과 中東에 있어서 美英間의 衝突로 말미암아 狀況
 이 急變하게 된 것이다. 1947年의 「트르만」독트린과 1948年
 NATO의 創設로 歐洲에 있어서 情勢가 大体로 安定해가는 反面에
 東歐에 있어서 中共軍에 의한 中國本土의 占領으로 말미암아 美
 國은 日本에 대하여 懲罰的 平和(punitive peace) 關係에서 同
 盟關係로 美日關係의 基本的性格을 轉換시켰다. 卽 樞東에 있어서
 共產政權에 대한 勢力均衡을 이룩하기 爲하여 日本은 早惠히 經濟
 的으로 軍事的으로 強化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美國의 態度는 1950年의 韓國動亂의 발발과 中共軍의 介入
 으로 한층더 強化되었다.

이와 같은 美日關係의 樹立을 爲하여 美國은 日本과의 平和條約체
 결을 서둘렀는데 그 具體的인 結果는 1951年 8月에 成案된
 「엔프란시스코」平和條約이었다. (註5)

「엔프란시스코」條約締結에 있어서 韓國은 締結國으로의 資格을
 얻지 못하였다. 뿐만아니라 同條約은 財産請求權과 國聯원 第4條
 를 除外하고는 後の 韓日關係締結의 道義에 功을 이룬 基本方向도 提示해
 주지 않았다.

다만 韓日關係의 正常化는 直接 當事國間의 接觸과 妥協으로 이루어지도록 남겨졌을 뿐이었다.

2) 1951年 10月~1965年 2月: 韓日關係正常化 모색期

이 期間은 韓日兩國間의 關係가 1965年 6월에 締結된 韓日條約으로 正常的 國交樹立을 하기까지의 期間에 該當한다. 第2次大戰後의 日本이 韓國과 公式的인 接觸을 始作하게 된것은 日本 駐屯 聯合軍總司令部의 주선으로 第1次 韓日會談이 東京에서 1951年 10월에 開催됨으로써 비롯한다. 그러나 韓國에서 李承晚 政權이 와해되기까지 4회에 걸친 本會談과 數百회에 이르는 予備會談 및 小規模의 兩國間의 接觸에도 不拘하고 韓日兩國間의 國交 正常化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 原因은 日本側의 立場으로 볼 때 韓日國交樹立을 為한 契機 自体가 自意에 의한것이라기 보다는 極東에 있어서의 共產威脅을 감안한 美國의 擁護에 의한 것이였었다 는데 있으며 이외에도 大略 다음과 같이 몇가지 點에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兩國間의 民族感情이 早速한 關係正常化 妥結을 願치 않을 만큼 아직까지 경직되어 있었던 事實을 들 수 있다. 近 40年間에 걸쳐 日本의 壓制를 받아왔던 韓國民으로서는 日本이 過去의 行爲에 대한 充分한 보상을 하지 않는限 對等한 位置에서의 國交 樹立이란 過去의 日本의 侵略을 正當한 것으로 認定해 주는것과 다를바 없는 算外外交라고 생각 했던것이며 日本으로서는 또한 過去에 自己네들이 支配했던 韓國이 내거는 條件을 수락하는것은 쿨

육外交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民들은 韓國動亂을 契機로 急速히 成長하는 日本을 板東에 있어서의 自由陣營의 強化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韓國의 安保에 危脅으로 看做하였으며 日本은 日本대로 国力이 急速히 上昇됨에 따라 韓國을 무시하는 態度를 견지하려 하였다. 이와같은 日本의 態度는 1953年 第3次 韓日會談에서 「日本의 韓國에 대한 過去의 統治는 韓國自体를 위하여 有利한 것이였었다」고한 「구보다」의 發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구보다」日本代表의 發言은 1958年에 第4次 會談이 열리기 까지 5年동안 경직된 韓日關係를 招來하였던 것이다.

둘째로는 李承晚博士의 反日路線을 들 수 있다. 그의 철저한 反日感情은 비록 그가 第2次 會談 開幕을 爲하여 「요시다」日本首相을 訪問하기는 하였으나 「萬一에 日本이 다시 韓國에 支配의 손을 뻗친다면 共産黨과 손을 잡고서라도 우선 日本과 싸울 것이다」(註6) 라는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寸步도 양보할 수 없다는 그의 態度는 日本의 立場으로 볼때에는 韓日關係妥結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세째, 韓日關係의 急激한 妥結은 韓國에 있어서나 日本에 있어서나 實際로 별반 그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卽 韓國이나 日本이나 그 國家安保와 經濟發展을 거의 美國에 全적으로 依存했기 때문이다.

네째로, 美日安保條約을 에워싼 日本의 國內政治가 日本으로 하여금 韓日關係의 妥結을 주저하게 만든 하나의 要因이 되었음을 指

摘할 수 있다. 1960年の 美日安保条約의 改正은 1950年代의 後半에 들어서면서 左翼系列의 切열한 反對運動때문에 戰後의 日本 政治에 있어서 保守政權이 政治生命을 維持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政治的危機로 부각되었기 때문에 (註7) 日本의 保守政權으로서는 이와같은 危機를 우선 克服하기前까지는 韓日關係樹立이라는 새로운 불집을 만드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60年の 美日安保条約締結에 따른 政治的 危機를 넘기고나자 日本은 韓國에 있어서 4.19에 의한 李政權의 沒落이라는 새로운 政局의 動向과 아울러 韓日關係의 妥結을 모색케 되었던 것이다. 特히 張勉政權에 의한 對日완화政策의 움직임은

5.16 軍事革命政權이 들어섬으로서 兩國間에 本格的인 接觸으로 轉化되었으며 1965년에 마침내 韓日條約의 締結을 보게되었다.

1965年の 韓日關係의 妥結의 主要 要因은 軍事와 經濟의 兩面에서 說明될 수 있다. 첫째, 軍事面에서 본다면 1950年代를 통하여 國府에 의한 中國本土의 수복이 不可能한것으로 確定되었을 뿐만 아니라 中共의 繼續的인 成長과 西方陣營에 대한 超激對路線은 소련에 있어서 후르시초프政權의 對西方완화政策과는 달리 極東에 있어서 強力한 위협勢力으로 登場하였으며 特히 越南事態에 對한 美國의 全面介入은 負擔增加와 아울러 極東防衛의 慮點을 남길 우려성도 없지않아 韓日兩國間의 對立的感情을 清算하고 보다 緊密한 關係로 轉換되어야 할 必要性을 美國이 어느때 보다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註8)

다음에 經濟的側面에서 보면 韓日兩國이 1960年代에 들어서면서
피차간의 經濟協力の 必要性을 느끼게 된 것이다.

우선 韓國쪽의 立場으로서는 韓國動亂以後 継続下降의 傾向을 나
타내고 있는 美國의 對韓經濟援助 및 軍事援助는 政局 安定의 基
礎가 되는 自立經濟樹立을 困難케 하여 韓日關係妥結에 따른 日本으
로 부터의 補償 및 經濟援助를 必要로 하게 된 것이며 日本側으로
서는 1960年代 初期의 經濟不況을 打開하는데에 韓國의 市場에
매력을 느꼈던 것이다.

1965年 韓日條約의 締結은 公式上으로는 日本政府의 「한개의
韓國」政策이 實現된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日本의 한개의 韓國
政策은 그 출발부터 強力한 輿論에 뒷받침 되었다기 보다는 經
濟的配慮(註9)와 美國으로부터의 壓力에 크게 影響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不安定한 要素를 많이 內包하고 있었다. 即, 韓日關係의
妥結은 自民黨에 있어서 「이시이 미쯔지로」가 이끄는 「日韓問
題懇談會」의 役割에 힘을 입은바가 컸는데 自民黨 內部에서도
「마쓰무라 겐조」가 이끄는 左派에서는 韓日條約締結을 철저히 反
對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親韓派의 앞장을 섰던
當時 自民黨 副總裁였던 「오노 밤보쿠」도 처음에는 매우 신중한
態度를 보인바 있다. 韓日會談妥結에 무엇보다도 장애가 되었던것
은 日本社會黨에 의하여 主導된 反對運動이었는데 여기에는 美日安
保反對運動에 加担했던 모든 組織 및 團體들이 總動員 되었다.

即 日本共産黨, 總評, 全學連, 朝總聯은 勿論이요 소위 「革新인테
리」라고 自勉하는 大學과 言論界의 知識人들이 反對輿論을 組織的

인 運動에 의하여 일으켰다. 한 調査에 의하면 日本에서의 韓日 會談反對를 위한 大衆示威만도 1960年에서 1965년까지 92회나 열렸고 이에 動員된 人員은 147萬名이나 되었다. (註10)

그리하여 처음에는 韓日會談을 支持하는 態度를 보였던 公明黨도 反對하는 立場으로 轉換하게 된 것이다. (註11) 그리하여 同條約의 日本 講會에서의 認準은 猛烈한 反對運動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真州灣作戰」式에 의하여 強行되었다. (註12)

日本內에 있어서 韓日條約締結反對의 名分은 1) 韓日條約締結이 韓國의 南北統一을 沮害할 것이다. 2) 同條約의 締結은 亞細亞에 있어서의 平和를 꾀 東北亞細亞機構(NEATO) 形成의 첫 段階이다. 3) 同條約에 의하여 韓國의 經濟는 日本의 独占資本에 의하여 침식될 것이다. 4) 日本政府는 同條約締結을 위하여 竹島(獨島)問題等 韓國側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양보를 하고 있다. 5) 兩國國民의 大多數가 同條約의 內容에 反對하고 있다 等으로 列挙되는 바 (註13) 第4項에서 나타나는 民族主義的 要素를 除外하고는 左翼의 슬로건이 大幅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第1項은 日本人들이 韓國의 統一을 꽤나 熱望하고 있는 것 같은 印象을 주나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하여는 다시 言及하겠지만 實은 正反對이며 여기서 말하는 南北統一이란 赤化統一을 意味한다고 봐야 될 것이다.

1965년의 韓日條約의 締結은 公式上으로는 日本의 한개의 韓國 政策을 淸명한 것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 처럼 그 타결動機가 經濟問題와 直結되었고 國內에 있어서 強力한 輿論의 뒷바침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不安定해질 수 밖에 없는 要素를 처음부터 內
包하고 있었던 것이다.

3) 1965年 3月~現在 : 不安定한 「한개의 韓國」政策期

1965年 韓日條約의 締結을 契機로 「韓日關係會議」「韓日
議員會議」등을 中心으로 韓日兩國間의 接觸이 本格化되었으며 韓國
이 유엔총회결의 195-III호에 의한 韓半島內에서의 唯一한 合法政
府임을 日本이 再천명하게 되었지만 問題는 完全히 해소된 것이 아니
였다. 우선 國民間의 相互不信과 蔑시의 態度는 常存해 있을뿐만
아니라 獨島問題, 漁業問題, 在日교포에 대한 差別대우문제 등은 언
제든지 兩國關係에 불집을 이르킬 수 있는 要因으로 남아있다.

더욱이 3億弗에 해당하는 現金 物資 및 用役에 의한 무상원조
와 2億弗의 政府借款, 그리고 3億弗의 民間借款으로 始作하는 韓
日間의 經濟協力은 兩國間의 유대를 마련하는 基本的 作用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韓國이 日本에 經濟的인 隸屬을 招來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韓國民사이에 일으키고 있는것도 否認할수는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韓國으로서 日本의 動向에 늘 경계를 하게 되는
原因은 日本의 兩面作戰, 即 韓國의 正統性을 認定하면서도 계속
北韓과의 接觸可能性을 모색해 오고 있다는데에 있다. 그 具體的
인 樣相에 관해서는 곧 言及하겠지만 北韓과의 非公式的인 접촉은
休職會談 直後부터 始作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大體로해서 1967年에서 1970년까지는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이
南韓一辺倒였음은 틀림없다. 그런데 이와같은 日本의 政策이

1970年에 들어오면서 그 本質上에 變化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소위 南北韓에 대한 等距離外交로 方向을 轉換하기 始作하였다. 그리하여 日本과 韓國 兩國間에 內的인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1973年의 金大中事件과 1974年 文世光事件으로 兩國關係는 國交正常化以後 最大의 危機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特別히 最近의 두가지事件은 彼此가 서로 事件發端과 處理問題에 있어서 相對方의 主權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함으로서 民族感情의 충돌로까지 事態가 發展되었던것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1970年에 들어오면서 부터 韓國에 대한 日本의 態度가 急轉하게 된 主要原因은 무엇보다도 美國의 對外政策에 있어서의 變化일 것이다. 即 위에서도 指摘한바와 같이 韓日關係의 妥結은 原則적으로 美國의 宗용에 의하여 획기적인 契機가 마련된 것인데 美國이 닉슨의 1969年 「광」宣言以後, 지금까지의 敵國이었던 中共과 소련에 急速히 接近함으로써 韓日關係에 內在하고 있는 極東에 있어서 共產 危脅에 對處하기 위한 盟邦으로서의 結束이라는 意味가 뒤 흔들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日本으로서의 지금까지의 對韓半島政策을 再檢討하고 과연 變化되고 있는 狀況에서 韓國과의 友誼를 強化함으로써 北韓으로 하여금 계속 敵對視하는 行爲를 하도록 할 必要性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考慮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나간 事實을 檢討해 볼때 美國이 韓日關係의 早速妥結을 希望한 根本原因은 日本의 左翼들이 主張했던것처럼 美國, 日本, 韓國의 主軸으로 東北亞條約機構 (NEATO.)를 形成하여 共產勢力에 좀더 強力히 對處하자는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美國의 對中共, 對소련 완화정책

遂行을 準備하기 위한 하나의 措置였다고 生覺된다. 卽 美國이 中共과 소련과의 「테방드」를 이북함으로써 생기는 極東에 있어서의 貨의 公債을 日本이 配부의 主권을 希冀한 것에 불과한 것이 다. 다시말해서 美國은 그동안 自由陣營의 主權國으로서 거운 貨 担 負에 對해서 現狀을 維持할 의사가 없어서 方向轉換을 해야의 겠는데 갑자기 이와같은 態度를 表明하면 韓國이 不安해지니까 日本이 戰後見入의 役割을 해주기를 希冀한 것이요 이를 위한 첫 段階의 事項이 韓日關係正常化라고 美國은 生覺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간 十年동안의 美國의 對極東政策은 別矛盾이 없다고 보여지 다. 다만 문제는 이와같은 美國의 底意를 日本이나 韓國이 如何히 자기나를대로 解釋했는가에 달려 있는데 日本에 關한限 美國의 底意를 어느 程度 간파한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日本의 中共 訪問으로 改變되는 方向轉換은 아무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理由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理由는 國際政治의 構造가 美. 小中心의 兩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 移行하게 된 있는가 하는 問題와 直結되 있는데

첫째로 兩極體制을 維持하는데 드는 費用이 너무나 엄청난다는 點을 들 수 있다. 卽 美國은 2次大戰直後 歐羅巴를 共產勢力의 침투로 부터 방어한다는 것을 그 골자로하는 「마셜플랜」에 만도 約 200 億佛이라는 費用을 썼으며 한 統計에 의하면 大戰以後 30年 동안 約 120 億佛에 대한 經濟 및 軍事援助만도 約 1,160 億佛 을 지출하였다. (註 14) 이 金額은 1970年의 美國의 總生産高의 12%를 훨씬 上廻하는 數字이다. 거기다가 海外에 주둔하는 美

軍의 經費, 新武器開發 等等 國防費에 支出하는 費用은 每年 總國民生産高의 10%에 該當하는 것이다. 이처럼 國防費 및 對外援助에 드는 莫大한 費用은 國內的으로 恒常 政府施策에 대한 主要 批判으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既存의 國際 政治 體制의 改編을 必要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련에 關한限 絶對額數는 美國의 그것에 훨씬 뒤떨어지나 國民 總生産高의 15%라는 點에서 볼때 國防費에 드는 出血의 程度는 美國以上으로 심각한 것이다.

둘째는 戰後의 國際經濟構造面에서 日本과 西獨이 갖는 意味가 急作히 上昇된 것이다. 卽 兩國의 經濟復興 및 發展은 兩極對立 冷戰體制라는 政治的 局面에 있어서 美國의 核兩傘 德分에 따로 國防費에 커다란 支出을 하지 않아도 된데에서 오는 利點을 活用한 데서 結果된 것이다. 그 原因이야 무엇이던지 간에 美. 소의 立場으로 볼때 日本과 西獨의 經濟力의 획기적 성장과 이에 자극받은 歐洲共同市場國家의 團合은 國際貿易上에 있어서 새로운 競爭者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과연 美國이 經濟面으로 強力한 경쟁자로 抬頭한 日本, 더욱이 日本으로하여금 이처럼 경쟁자로 나타나게 만든것이 美國의 日本에 대한 安保費를 부담한데서 나온 事實을 감안할때 더이상 單獨의 安保費支出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에 부정적 態度를 取하게 됨은 當然한 것이다.

세째는, 中쏘紛爭에 의한 共產陣營內의 分裂이다. 中쏘간의 對立은 이미 1950年代 後半에서 나타나기 始作하였다. (註 15)

이와같은 事態는 두개의 核國家를 中心으로 余他の 나라가 陣營을 形成, 陣營對陣營의 對立이라는 兩極體制가 互解脫 하고 있음을 事實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제는 英國, 仏蘭西, 中共 等の 核武器 保有國家의 增加를 들수 있으며 核武器 保有國의 數는 점차 더욱 增加되는 추세인 것이다.

실제로 印度는 이미 새로운 核武器 保有國에 加入되었으며 앞으로 몇年內에 十餘個國이 이에 加担하리라고 予測되고 있다. 核武器가 갖는 國際政治上의 意味는 美소의 核雨傘에 들어가야만 自國의 安全을 維持할 수 있다는 積極的 假說과 어느 한쪽에도 들어가지 않는것 만이 自國의 安全을 유지할 수 있다는 消極的假說로 나누어 지는데 前者의 假說에 의하여 兩極體制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後者의 경우는 新生諸國에서 대체로 採択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의 中立的態度와 아울러 利害關係의 相異때문에 第3의 力으로까지는 發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如何間 核武器保有國의 增加는 종전까지 美소의 壓倒的 武力때문에 行動의 自律性을 잃게 되었던 陣營從屬國들의 行動의 半徑을 넓히는 結果를 가져온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이다.

다섯째는 비록 困力에 있어서는 微弱하나 新生獨立國家의 계속적 인 증가와 이에따른 이들의 UN에 있어서의 發言權의 強化는 兩極體制維持에 莫大한 差질을 가져온 것이다. 이상과같은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一連의 움직임은 따라서 갑자기 나타난것이 아니고 長期間에 걸쳐 形成된 것이다. 실제로 兩極體制에 의한 冷戰은 1962年의 큐바의 미사일事件을 그 頂點으로 그 以後부터 美소間

의 對立은 部分的 核武器制限協定을 채택하고자하는 努力을 보이는 等 下降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움직임은 앞에서 指摘했듯이 自由陣營內에서 比較的 中立的이며 實利主義의 立場에 있었던 日本이 看過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키신저의 中共訪問으로 美國과 中共과의 和解가 決定的인것으로 公表되면서 日本의 對 中共接近政策은 熱을 띠우기 始作 하였으며 그 具體的인 첫 행동이 1970年 11月の 「日·中共 國交回復促進議員聯盟」의 發足이었다.

同聯盟은 自民党的 左派 「후지야마 아이이찌로 (藤山愛一郎)」을 會長으로 自民黨을 비롯한 社會黨, 公明黨, 民社黨의 親中共系 議員들 328名의 同調를 얻었으며 共產黨議員들은 包含되지않아 個別的 接觸을 하였다. 이 聯盟은 「日·中共貿易促進議員聯盟」과 그밖의 各種 文化, 學術, 地方團體등 法人과 個人까지를 包含해서 會員으로 加入시키며 聯盟의 目的은 15箇條의 規約에 明示되어 있는데 이들은 日本과 中共과의 國交를 回復, 法律上的 戰爭終熄과 兩國間의 友好親善의 基礎를 만드는 것을 그 骨子로 하고 있다. (註 16)

실제로 日本과 中共과의 接觸은 交易 및 體育 文化 言論人의 交換을 通하여 이미 1950年代부터 非公式的으로 이루어온 만큼 상당한 기간이 經過하였으며 너스네의 中共訪問은 日本이 中共과 「사포」의 北京訪問, 漁業協定 航空協定 貿易協定등을 通하여 公式的인 國交樹立의 契機를 만들도록한 契機가 되었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日本은 北韓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日・中共間交回復促進議員聯盟」이 發足된지 1年後인 1971年 11月 22日 同聯盟의 姊妹機關格으로 「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이 「구노주지(久野忠治)」等 32名의 自民黨議員을 包含, 社會黨과 共産黨所屬 衆議員 大部分과 公明黨 및 民社黨所屬 多數가 參加하여 總 246名으로 發足を 보고 그다음해인 1月 18日 「구노」가 이끄는 11名의 議員使節團이 모스크바를 경유 平壤에 到着하여 一週日間 訪問한 것이^(註 17) 소위 日本의 南北韓 等距離外交의 公式的인 出發點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以前까지의 日本과 北韓과의 非公式的·接觸의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日本에서 戰後에 北韓에 대하여 非公式接觸을 始作한것은 1953年 11月에 日本의 平和維持委員會의 委員長이며 國會議員인 「오야마 이쿠오」가 이끄는 日本人民親善使節團이 平壤에 一週日間 訪問한것에서^(註 18) 부터 비롯한다. 1954年 北傀外相 南日은 在日僑胞들의 切實問題를 가지고 論難을 한바 이것은 재일교포의 北送問題를 가지고 日本이 北韓과 交渉을 벌릴 수 있는 可能性을 示唆한것이고 그다음해인 1955年에 다시 南日이 文化交流 및 交易의 可能性을 암시 함으로써 日本 經濟界의 注目を 끌었다. 그리하여 同年 10月 日本은 주로 社會黨所屬 議員들과 經濟界 사람들로 構成되는 經濟使節團을 北韓에 派遣하였고 1956年 2月에 北京에서의 日·北韓間의 通商交渉에 合意를 봄으로써 大連을 통한 日本과 北韓과의 交易이 始作되게 되었다.^(註 19) 그러나 그 交易品目은 極히 制限되었었고 交易量도 直接交易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制限된 것

이다.

大連을 통한 交易은 얼마안가 중단되고 日本은 1959年 12月에 非戰略物資에 限하여 北韓에의 輸出을 許諾하고 이번에도 直接 北韓에로 貨物을 運搬하는것이 아니라 香港으로 감으로써 結局 香港을 통한 交易을 했던 것이다.

日本政府가 經濟界의 壓力때문에 北韓과의 直接交易을 許用한것은 1962年에서 었다.

한편 日本과 北韓과의 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比重을 차지한것은 재일교포의 北送問題였다. 2次大戰이 終結되었을때 約 150萬名 가량의 韓人이 日本에 주재하고 있었는데 그중 90萬 가량은 解放과 더불어 歸國하고 남어지 約 60萬 가량이 日本에 머물러 있었다. 이들은 民族的差別을 받으며 그 大部分이 經濟的으로 下層階層에 屬하여 日本으로서는 頭痛거리임에 틀림없는데 韓日關係가 樹立되지 못한 理由로 日本으로서는 韓國에 送還할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勞動力이 不足한 北韓으로서는 北韓에 送還되기를 希望하는 在日교포들을 받아들일 意思를 表明하였으므로 日本으로서는 이를 환영하게 된것이다.

교포의 北送에 대하여서는 韓國內에서는 勿論 日本內에서까지 日本人과 같이 同等한 대우는 못할망정 北韓으로 보내는것은 一種의 追放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분분하였으나 朝總聯의 家家戶戶의 訪問에 의한 교포들의 說得, 그리고 1959年 4月の 日本赤十字會과 北韓赤十字會의 제네바에서의 會談, 그리고 同年 8月 印度의 칼카타에서의 兩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約 9萬名가량의 재일교포가 北

送되게 된 것이다.

結局 以上으로 볼때 北韓과의 關係는 그 主要推進要因은 經濟的인 要素이며 재일 교포의 北送이라는 副次的인 要因 때문에 兩側間的 接觸이 比較的 더욱 활기를 띠우게 된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側面外에도 그동안의 日本의 北韓과의 接觸은 韓日關係妥結에 있어서 韓國側의 熱意 乃至 양보를 促求하기 위한 方策으로도 使用되었음을 看過할 수 없을 것 같다. 即 1950年度 自由党政權時代의 李博士의 強경한 對日本政策은 平和線의 設定等으로 日本을 괴롭혔는데 日本은 이에대한 경제정책으로 小規模이나마 北韓과의 交易를 추진하고 재일 교포를 北送하는 措置를 取했을 可能性도 甚다.

從前까지 日本이 北韓과의 接觸을 可能케한 媒介手段은 黨과黨의 接觸, 人民對人民의 接觸이라는 方式이었다. 即 日本共産黨은 1957年 1966年, 1967年 3次에 걸쳐 北韓의 朝鮮노동당을 訪問하였고 그 밖의 左翼政黨 特히 胡總聯의 빈번한 왕래는 앞에서 言及한 在日 교포의 北送問題 말고도 裏面에서 主要한 교량적 役割을 하였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人民對 人民의 接觸이라는 點에서 볼때 體育人, 文化人, 言論人, 그리고 經濟人의 왕래역시 日本內의 親北韓派 形成에 크게 作用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1963年 日本이 16名의 北韓의 氷上팀을 入團시킨것은 北韓의 體育人들이 대거 入團한 그 시초이며 最近 北韓을 訪問하여 金日成과 面談한 「우쓰노미야」 自民黨議員만 하더라도 1965년에 亞阿問題研究會會長의 資格으로 平壤에서 열린 日本貿易박람회에 參加한 적이 있는 것이다.

한편 北韓側으로는 日本과 韓國과의 갈등을 惹起하기 위해서도 反日을 왜치면서도 時期時期에 따라 日本에 많은 接近을 하고 있다.

1957년에 最高人民會議席上에서 '兩國人民의 共通의 利益과 匪細 匪에서의 平和를 維持하기 위해서 日本과의 調和있는 國交正常化를 希望한다.'^(註20) 한 金日成의 發言은 좋은 實例이다.

이와 같은 北韓의 態度를 日本으로서는 南北韓에 대한 견제로서 有效적 策이 使用하려 함은 勿論이다. 以上으로서 지금까지 日本의 對韓 半島政策의 史的考察을 하였거니와 그러면 어떠한 因子들이 北韓으로 하여금 北韓에 接近하게도 하고 制動을 걸기도 하는가를 살려 보기로 하는데 우선 다음 장에서는 日本의 對北韓接近推進要素를 檢討하기로 한다.

三. 日本의 對北韓接近의 推進要素

日本으로 하여금 소위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推進케 하는 要素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大略 그 重要的 것만을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1) 安保問題

日本의 安保를 위한 再軍備의 問題는 다음 章에서 再論되겠지만 現在의 日本의 立場으로는 国内政治問題 때문에 再軍備를 本格的으로 推進할 수 없는 立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로서 日本으로서는 可及的이면 外部로부터 日本을 共存할 수 없는 敵으로 認定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며 이 점에서 北韓도 例外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北韓에 대한 不透明한 態度에는 韓國으로부터 오는 반발이 問題이겠는데 設令 南北韓等距離外交 때문에 韓國이 반발하더라도 그것이 日本의 安保를 위협할 程度로까지 發展할 수 없음을 日本은 믿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中共 및 소련과 和解를 推進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들과의 關係改善이 國家利益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믿는 日本으로서는 이들의 保證을 받고 있는 北韓과의 갈등도 可能的 限 最小化하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當然한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北韓의 存在가 당장에 日本의 安保에 위협을 준다고 보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처럼 이룩해 놓은 中共 및 소련과의 和解霧圀氣를 깨뜨릴 수 있는 作用을 北韓이 할수

도 있다고 믿는것 같다. 特히 金日成은 그 自身の 偶像화를 위해서도 過去의 그의 抗日運動을 계속 과장하여 선전해 왔을 뿐만 아니라 「日本軍国主義의 再登場」에 대한 경계를 北韓에 있어서 金日成体制의 지속적인 공고화를 위하여 強調해온 만큼, 韓國에 있어서 美軍의 지속적인 주둔보다 美軍의 철수後의 「日本軍国主義」의 韓國에의 침투를 더욱 우려하는(적어도 論理上에 있어서는) 中共에 密着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2) 日本의 国内政治上的의 問題

日本 自民党政權이 親韓一辺倒로서만 對韓半島政策을 遂行할 수 없는 또하나의 主要原因은 自民党的의 人氣가 1958年 以後로 繼續 下降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即 1958年에 自民党은 總選舉에서 有効投票의 57.8%의 支持를 받았는데 1967年 總選舉에서는 48.8% 그리고 1969年 選舉에서는 47.7%의 지지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議회의 議席을 多數로 차지 하는 理由는 순전히 日本의 選舉制度가 中選舉區를 採択하여 一區에서 複數의 議員이 選出되게 되어있는 現行 選舉制度를 有効 적절하게 運營하는 自民党的의 選舉戰略에 의한 것이다. 即 當選 可能性이 있는 立候補者들을 적절하게 공천하고 이들에게 莫大한 選舉資金을 供給함으로써 當選되도록 하는 戰略인데 그 結果는 每 選舉때마다 공천인數를 自然히 줄이게 된다. 即 1958年 選舉에서 自民党은 모두 413名을 党公천을 하여 287名을 當選시켰는데 投票者들의 自民党에 대한 支持가 줄어들자 1969년에는 327

名을 공천하여 288 名의 議席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비록 議席은 그런데로 多數를 維持한다 하여도 黨에 대한 一般의 支持가 줄어진 때문에 自民黨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神經을 안쓸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野黨의 自民黨政權의 政策에 대한 批判에 神經을 쓰게되고 自然히 獨者的인 強力한 政策수립에 동요를 가져오는 것이다. 韓半島政策에 関한 限 韓國一辺倒의 政策에 反撥하는 野黨의 批判에 守勢的 立場에 自民黨은 놓이게 되는 것이다.

自民黨이 가지고 있는 根本的인 弱點은 最近의 「다나카」의 退進을 에워싸고 다시 日本政界에서 強力하게 批判을 받고 論議된바 있지만 大略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派閥主義

흔히 日本의 政黨制度를 一點半 政黨制度²¹⁾라 불러왔는데 그 理由는 最近까지의 日本의 政治는 保守勢力인 自民黨이 圧倒的으로 支配해 왔고 社會黨을 위시한 余他 野黨들은 議會에서 그야말로 小數에 지나지 않아왔다는 點에 起因한다. 그러나 問題는 1.5 政黨制의 바로 그 「1」이 問題인 것이다. Scalapino 와 「마쓰미」教授가 적절히 指摘하고 있는것처럼 自民黨이 과연 組織的인 體系를 가지고 있는 政黨이나 아니면 單純히 派閥의 聯合이나 할 程度로²²⁾ 自民黨은 内部的 體系 및 團合에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現在 自民黨에는 「다나카」(田中角榮)派 「후쿠다」(福田赳夫)派 「오히라」(大平正芳)派, 「나카소네」(中曾根康弘)派, 「미키」(三木武夫)派, 「시이나」(稚名悦三郎)派, 「미즈다」(水田)派, 「후나

다」(船田)派, 「이시이」(石井)派等 大小 十余個의 派閥이 形成되어 있다. 特定 個人을 둘러싼 이들 派閥은 理念上의 差異로 나누어 진다기 보다는 個人的 利害關係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스」의 死亡이나 政治的 沒落에 따라 派閥의 興衰도 決定된다.

예를 들어 한때 得勢를 했던 하프야마(鳩山一郎)派나 「요시다」(吉田茂)派 같은것은 完全히 命脈이 끊어졌거나 흩어졌고 「기시」(岸信介)派, 「고노」(河野一郎)派, 「오노」(大野)派 같은것은 中間보스였던 「후쿠다」(福田赴夫), 「나카소네」(中曾根康弘), 「후나다」(船田)에 의하여 새로운 派閥로 再編된 것이다.

왜 이와 같은 派閥이 造成되며 이들 派閥이 갖는 政治的機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說明할 수 있으나 한 日本政治研究 專門家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自民党的 總裁의 選出과 關聯된 것인데 이들 派閥은 總裁를 選出하는 機能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란 制度的인 것이 아니고 事實上 機能을 말함은 勿論이다. 둘째로 이들 派閥은 自民党的 政治資金을 마련하는 作用을 한다. 셋째, 党内 및 政府의 要職을 에워싼 경쟁은 派閥을 助成하며 實際로 派閥은 要職안배의 機能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네째, 一區에서 複數의 衆議員이 當選될 수 있게 되있는 現行 選舉制度는 同一政黨에서 複數의 공천자를 내도록 만들며 그 結果 立候補者는 党뿐만 아니라 党内의 特定한 政派의 支援을 必要로 하게 된다. 따라서 各派閥들은 自己派에 屬하는 사람들이 공천되도록 努力하며 공천이 된 後에는 選舉資金의 後援, 流說等으로 지

원해 준다. 다섯째로 派閥들은 自己派에 屬한 사람들間的 團結 및 協調를 強調함으로써 一般 黨員으로서는 느끼기 어려운 유대의 식, 다시 말하여 心理的要求를 부응시켜 주는 作用을 한다.^(註23)

이와같은 派閥政治가 自民黨의 政策樹立에 주는 影響은 派閥의 政策과 黨의 政策間에 종종 乖離를 가져와 團合된 黨의 政策樹立에 混線을 가져옴은 勿論, 樹立된 政策의 實現에도 많은 蹉跌을 가져 온다는 点이다.^(註24) 따라서 日本의 野黨이 거의 다 理念政黨으로서 推究하는 目標가 뚜렷한 反面에 自民黨은 一見 無定見 乃至 無原則한 政黨으로까지 批判을 받게 되는 것이다. 實際로 自民黨內的 派閥들은 自民黨이 他黨에 比하여 훨씬 團合을 이루지 못하는 主要原因이 되며 輿論을 主導하는 立場이라기 보다는 野黨의 攻勢에 동요되는 立場에 놓이게 된다. 自民黨의 性格上 分明히 韓半島 政策에 있어서 韓國을 強力히 支援해야 할 變地임에도 不拘하고 동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 金權政治

自民黨의 또하나의 弱點은 바로 派閥形成과도 關聯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自民黨의 選營이 너무나 金力과 結付되어 있다는 것이다. 派閥을 維持하려면 各派의 「보스」는 會員들의 選舉資金 및 一常的인 政治資金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當然한 結論이며 따라서 財界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게 된다. 經濟界와 自民黨과의 얽힌 갖가지의 欸문, 國民協會 및 後援會와 自民黨과의 關係^(註25)는 自民黨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으며 실제로 自民黨內的 金權政治는 自民黨의 將來와 關聯하여 問題가 되고 있다.

最近 「다나카」의 退進은 그 좋은 一例이며 한가지 例를 들자면 自民黨 副總裁였던 「오노 밤보꾸」의 회고에 의하면 總裁選出 時代議員들에게 뿌려지는 金額의 額數는 2,800 弗에서 8,400 弗에 이르며 1963 年度 「이께다」「사또오」「후지야마」間에 벌어졌던 總裁選舉에 든 費用은 四百万弗 乃至 五百万弗이었다고 한다. (註26)

(다) 黨의 老化

自民黨이 人氣를 잃어가는 또하나의 主要原因은 黨의 老化에 있다. 即 各派의 「보스」들로 形成되는 黨의 指導層은 自然히 平均年齡이 他黨에 比하여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 點은 黨의 衰進에 장애가 된다고 보여진다. 派閥政治 外에 새로운 人材登用에 장애가 되는 것은 選擧制度 그 自体이다. 即 中選擧區를 採擧하는 日本의 경우는 小選擧區를 採擧하는 경우보다 새로 出馬하는 사람에게 不利하다. 왜냐하면 選擧區域이 넓기 때문에 주어진 選擧運動期間內에 充分한 選擧運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自然히 이미 基盤을 닦아놓은 二選, 三選議員보다 初選을 目標로 하는 新人은 有權者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多數 席 확보만 目的으로 하는 自民黨으로서도 自然히 新人보다는 기성 政治적인들을 공천하게 되고 野心있는 新人들은 公明黨이나 社會黨 심지어 共産黨의 候補로 出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註27) 대체로 지금까지는 꽤 많은 젊은 層에서도 自民黨을 支持하여 왔으나 (註28) 自民黨의 계속적인 老化現象은 漸次的으로 새로운 有權層에 人氣를 잃어갈 것으로 展望된다. 實際로 今年 七月에 있었던 參

議員選舉에서 이러한 징조는 짙어졌다.

以上과 같은 自民黨이 안고 있는 主要問題點들은 自民黨 內部에서 도 「保守新黨論」 및 「保守革新聯立政權理論」 등으로 자가비판이 加해지고 있고 「나카가와」(中川一郎)와 「이시와라」(石原慎太郎) 등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靑嵐會의 黨風刷新運動이 일어나고 있으나(註29) 워낙 長期間에 걸쳐 形成된 一種의 體質이기 때문에 어떻게 改善될지는 우리로서는 憂心事가 아닐 수 없다. 自民黨에 대한 日本國民의 支持度가 弱화되어 간다는 事實은 現在 韓半島政策에 있어서 日本의 野黨들이 모두다 北韓과 보다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기를 願하고 있는 點에 비추어 볼때 南北韓等距外交를 自民黨이 推進하도록 만드는 要因이 甞은 의심할 余地가 없겠다. 特히 「高度로 集中化」되어있는 日本의 新聞 및 어느面에서 보면 「편파성」과 「과장성」을 가지고 있는 日本의 言論界(註30)가 自民黨에 대한 攻擊을 위한 하나의 方便으로 계속 北韓에의 接近을 증용하고 있다는 事實 또한 우리로서는 看過할 수 없겠다.

3) 經濟不況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에의 接近을 推進하도록 만드는 主要因子の 하나는 現在의 經濟不況이다. 1972年 中東事態로 因한 石油波動이 일어나기 直前만 하더라도 日本은 世界第3位의 經濟大國으로 認定되었으며 머지않아 經濟力에 있어서 美國과 경쟁할 수 있는 存在로 認定되었었다. 그러나 日本이 石油波動과 더불어 世界의 어느나라보다 가장 큰 被害를 입고있는 事實으로써 日本의 經

濟力에 대한 再評價와 아울러 이와 같은 假定은 根本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거기다가 國際的인 不況에 따른 美國을 위시한 여러 나라들의 日本商品에 대한 輸入抑制와 東南亞 各國의 反日感情 (특히 經濟的浸透와 國聯하여)은 日本으로 하여금 可能한 限 모든 海外市場開拓에 專念토록 할 것은 當然하며, 政經分離主義에 의한 實利外交는 原來부터 日本이 유지하고 있는 政策이므로 이점에 立脚해서도 北韓에의 接近은 推進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章에서 檢討되겠지만 現在까지 北韓과 日本과의 交易量은 南韓과의 그것에 比하면 少量이기는 하지만 韓國의 對日本 輸出品目이 原料에서 점차 商品으로 바뀌어가는 反面에 北韓의 그것은 아직도 原料가 커다란 比重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原料供給地 뿐만이 아니라 장차의 커다란 商品市場으로서 北韓의 有用性을 日本은 考慮하게 되는 것이다.

4) 南北對話

위에 지적한 세가지 要因들에 比하면 매우 局部的인 要素이기는 하지만 韓國側의 南北對話의 提議 및 南北韓의 UN에의 同時加入案等은 日本으로 하여금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推進하게 만드는 一要因이 되는 것 같다. 勿論 大韓民國의 이와같은 提議들은 國際情勢의 變動 특히 韓半島를 에워싼 列強들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變化하는 外部情勢에 自体를 적응하려는 데에서 起因한 것이기는 하지만 逆으로 볼때 韓半島內에서의 이와같은 움직임은 韓半島의 內部情勢를 細心히 觀察하는 列強들에게도 作用하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外的要因과 內的要因의 交互作用이라 할 수 있다. 即 日本의 政治人들로 볼때 韓國이 北韓의 存在를 事實上 認定하는 마당에 왜 우리는 韓國에만 집착하고 北韓을 도외시해야 될 必要가 있는가 하는 心理的 要因을 우리는 認定해야만 될 것이다.

以上으로 大略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에의 接近을 推進하는 要因들을 考察한바 지금부터는 그 反對 要因, 即 接近을 抑制하는 要因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四. 对北韓接近의 抑制要素

다음과 같은 要素들은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에의 接近을 抑制하거나 接近에 限界를 만든다고 考慮된다.

1) 韓半島에 대한 敵對意識

傳統的으로 日本은 韓半島에 대하여 敵對意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根本적으로 韓半島의 統一을 願치 않는 立場에 있다. 卽 어떠한 形態로든지의 強力한 韓半島勢力의 登場은 日本에 대하여 危脅이 된다고 생각하는 態度와 觀念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觀念의 背後에는 統一韓國의 力量自体 때문에 日本의 安保에 危脅을 준다는 것 보다는 늘 背後에 있는 大陸勢力, 다시 말해서 中國과 소련을 意識하는데서 오는 것 같다. 卽 統一韓國은 分斷된 韓國보다 日本에 不利한 方向으로 大陸의 影響을 받게 되리라는 觀念이다.^(註1) 이와 같은 觀念은 現在 大韓民國을 共產勢力(大陸勢力)의 「버퍼 존」(buffer zone)乃至 「쿠트손」으로 看做하는데서도 明確히 나타나다 할

이와 같은 觀念은 大韓民國이 極東에 있어서 自由陣營의 보루이며 大韓民國의 喪失은 인접한 友邦인 日本에 直接的 危脅이 된다고 생각하는 美國과도 一致하나 그 느끼는 程度는 日本으로서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卽 韓國의 赤化는 美國의 安保에는 直接的 影響이 없지만 日本에게는 直接的으로 影響을 준다는 점에서 美國과는 利害關係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韓의 固

定을 前提로 한 實利外交面에서 日本은 北韓과의 接觸은 계속하겠지만 南北韓固定이 危脅될때, 다시 말하여 日本의 北韓接觸이 軍事 및 國際政治面에서 韓國의 弱化를 招來한다거나 韓半島를 에워싼 國際政治의 勢力均衡을 꺾 우려성이 있을때 北韓에의 接近을 中止할 것이다.

더욱이 日本의 自衛라는 点에서 볼때 日本이 處해진 立場은 過去와는 다르다. 앞에서도 言及하였거니와 日本은 지금까지 2次大戰後의 國際政治上에 있어서 兩核体制 때문에 美國의 核雨傘下에서 安保問題에 別 神經을 안셔도 좋았으나(그 結果 經濟第一의 原則이 支配的이었음)· 앞으로는 漸次的으로 自體的 防衛問題가 日本外交의 核心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그 理由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極東에 주둔하고 있는 美國의 軍事力이 當장에 勢力均衡에 影響을 미칠 정도로 철수할 展望은 없지만 점차적으로는 日本의 防衛는 日本이 一次的으로 責任져야 되는 方向으로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日本의 經濟의 根源이 되는 原料의 導入, 특히 原油는 거의 絶對적으로 海外에서의 供給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에 原油供給의 90%를 말라카해협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으로서 同供給線의 保護를 위해서도 自衛手段의 強化 即 再武裝은 실제로 시급한 形便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다만 国内政治上의 問題点 때문에 自民黨으로서 再武裝論議(一次的으로는 憲法改正問題)를 現時点에서 회피하고 이에 대한 代案으로 인접 共產勢力과의 和解雰圍氣助成에 努力하고 있는 印象을 주고 있으나 그 實은 結局에 가서는 軍事力確保만이 極東에 있어서의 勢力均衡을

維持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自民当政權은 認識하고 있다. 實際로 現在 日本의 國防費는 國民總生産高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라서 美國의 10%, 소련의 15%에 比하면 比較가 안되지만 1972年 - 1973年에 소요된 額數는 約8000億圓(約30億弗)으로서 絶對額數에 있어서는 世界 第7位를 記錄하고 있다.^(註32)

2) 北韓의 好戰性

北韓이 現存하는 共產体制中에서 가장 好戰的인 体制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고 이와 같은 主張에는 많은 共產圈 研究 專門家들의 觀察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好戰性은 확고부동한 金日成体制를 이룩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北韓의 內的 團結을 위하여 강경로선을 採択해온데에서 배태된 것이며 金日成이 好戰的態度에 의한 內的 團結을 強調해온 이면에는 적어도 1958年까지 內部的으로 치열했던 派爭과 그 以後에도 金日成体制에 도전하는 요소들이 恒常 存在하고 있는 同時에 中소의 強大國에 끼여 生存해야 하는 弱小共產國이라는 北韓의 屬性에 起因한다.

即 好戰的 態度는 內的 外的 難關下에 金日成이 自己体制를 維持하기 위한 最善의 武器인 것이다.

金日成政權의 最大目標는 두말할 나위없이 南韓의 赤化統一이다. 그리고 그의 南韓赤化의 基本戰略은 1965年 4月 「인도네시아」의 社会科学院에서 行한 演說과 1968年 9月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스무돛 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다시 부연된 바 있는 소위 3大革命力량의 強化, 即 革命基地로서의 北韓

自体的 力量強化, 南조선 人민의 革命力量의 強化, 그리고 外的革命力量의 強化이다.^(註33) 여기서 外的革命力量의 強化란 外部로부터 北韓에의 支援 乃至 支持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 具體的內容으로는 國際社會에 있어서 大韓民國의 孤立을 意圖하는 것이다.

南韓의 赤化統一과 外的革命力量과의 關係에 關한 限 北韓에 대하여 가장 理想的인 狀態란 日本의 赤化 乃至 左傾化임은 부연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北韓이 할 수 있는한 日本의 共產系列 및 左翼系列을 도우리라는 것은 當然하며 實際로 朝總聯을 통한 日本 左翼系列과의 接觸, 赤軍派에 대한 음성적 지원等 日本의 基本體制를 否定하는 만큼 北韓의 好戰性은 日本의 現政權에 대하여 危脅的인 存在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金日成은 自身の 政權을 公히 하기 위한 方法으로 反日感情을 거의 명복적으로 北韓社會에 造成하여왔기 때문에 비록 現在 日本에 대하여 接近策을 쓰고는 있으나 그것이 韓國과 日本間의 離間을 위한 目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는 事實때문에 日本으로서는 北韓에 接近하면서도 限界點을 意識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3) 日本의 體制의 基本屬性에서 오는 要因

日本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體制가 東洋의 여러나라중에서 가장 西歐的인 性格을 나타내게된 기본 理由를 2次大戰後의 美國의 占領과 그 影響에서 說明하는 見解가 있는데 이와 같은 見解는 日本의 近代化過程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勿論 우리는 戰後의 美國이 日本에 미친 影響^(註34)을 過少評價할 수는 없으나

明治維新以後 日本이 걸 어온 近代化過程을 살펴볼 때 戰後의 日本 体制은 이내 그 나름대로 西歐的制度를 採択할 수 밖에 없는 素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과는 相異한 이러한 基本 体制은 原則的으로 衝突하게 되어 있다.

日本の 左翼들이 現在의 日本의 体制을 如何히 批判하던간에 日本은 西歐的 自由主義体制을 採択함으로써 亜細亞國家로서 近代化에 成功한 境遇임에는 틀림없으며 이와같은 制度에서 나오는 各種屬性은 이미 日本人 自身들이 意識하건 안하건 體質化되고 만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現在 日本人들은 北韓과의 接觸이 그동안 거의 없었음으로 인해서 北韓을 오히려 好評하게 되는 面이 많은데 接觸을 함으로써 北韓의 참모습을 認識하게 될 것이다. 一例를 들자면 北送日人妻들에 대한 日本과의 往來를 禁止하는 処事 같은것은 北送을 希望하여 北韓에 가기 직전까지는 日本의 制度下에서 生活해온 사람들로서는 想像키 어려운 일이었지만 「常識에 어긋나는」 이와같은 処事が 實際로 일어난다는 現實에 日人들은 驚악하고 있는 것이다. 体制의 基本的인 相異에서 오는 日本과 北韓과의 갈등은 앞으로 서로가 接觸함으로써 더욱 露呈할 것으로 豫想되며 이와같은 갈등은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에의 接近에 制限的 作用을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4) 美國에의 依存性

國際政治에 있어서 強大國間의 和解「무드」는 日本으로 하여금

從前보다 훨씬 많은 行動의 自律性을 賦與함에는 의문의 余地가 없지만 아직까지 여러面에서 日本은 美國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이 點은 특히 日本의 安保와 經濟面에서 그러하다. 大体로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外交政策의 基本目標은 1) 自國의 安保 2) 經濟의 強化 3) 自國文化의 國際的 高揚 4) 以上의 3 가지를 實踐하는데 必要한 手段의 強化라고 一般化할 수 있는데 日本의 安保와 經濟가 아직까지 美國에 高度로 依存하고 있다는 事實은 日本의 外交政策의 內容이 美國에 依하여 싫던 좋던 左右되지 않을 수 없다는 結論이 나오게 된다. 이와같은 安保 및 經濟에 있어서 美國에의 依存性은 韓國의 安保에 危脅이 될 정도로 日本이 北韓에 接近하는 것을 防止하는 要因이 된다.

우선 日本이 그 安保問題에 있어서 美國의 配慮에 依存할 수 밖에 없는 主要原因은 다시 말하거니와 一次的으로는 日本의 國內政治上의 問題에 있다. 日本의 核武裝이 日本의 安保解決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느냐 하는 問題自体에도 勿論 論議가 紛紛하고 (註 35) 日本의 核武裝이 반드시 韓半島의 安保에 도움이 되리라는 保障도 없지만 (註36) 如何間 지금의 日本의 政局의 形便으로는 核武裝을 自民党政權이 願해도 이에 따른 政治的試練 때문에 할수없는 立場에 있는 것이다. 專門家들의 見解는 거의 모두 日本이 現在 核武裝을 할 수 있는 財政的 技術的能力도 있고 自民黨에서는 이를 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日本에서는 오랫동안 自民黨政策에 대한 攻讎의 하나로서 野黨에서는 美日 安保條約을 폐기하거나 友好條約으로 代置하자는 主張과 아울러 自衛隊의 解散論이 抬頭되고

<表1>

日本の主要国別

	1970 ※		1971	
	日本에서輸出	日本이輸入	日本에서輸出	日本이輸入
Total	19,317,687	18,881,168	24,018,881	19,711,750
소련	340,932	481,038	377,266	495,879
美国	※※ 6,503,597	※※ 6,488,454	7,495,250	4,977,882
韓国	818,175	228,970	855,687	274,421
北韓			28,907	30,059
台湾	700,418	250,765	923,332	286,017
中共	568,878	253,818	578,188	323,172

資料： 通商産業省編, 昭和49年版 通商白書(各論) 東京:

※ 財団法人 通商産業調査会(東京:

※※ 캐나다와의 通商額數도 包含된

交易実績統計

(單位: 1000 dollar)

1972		1973	
日本에서 輸出	日本이 輸入	日本에서 輸出	日本이 輸入
28,591,144	23,470,711	36,929,971	38,313,604
504,179	593,905	484,209	1,077,701
8,847,678	5,851,634	9,448,678	9,269,559
979,792	425,991	1,789,114	1,207,308
93,443	38,311	100,159	72,317
1,090,616	421,864	1,641,758	890,695
608,920	491,115	1,039,493	974,010

大蔵省印刷局 1974

1971) 의 統計임.

것임.

있으나 이것은 現實적으로 볼 때 日本의 國家利益에 不利한 것이다. 이와같은 野党的 主張에 대하여 「가네야마」(金山政英) 前駐韓日本大使는 最近과 같이 變動이 甚한 國際政治의 狀況下에서는 모든것이 豫測키 困難하고 強大國間의 和解란 不安全한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自衛隊는 계속 必要하며, 現在의 不安한 平和는 勢力均衡에 依存하는 만큼 소련과 中共과는 달리 核武器를 保有치 못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美國의 核武器와 海軍力에 依存할 수 밖에 없고, 日本이 美日安保條約을 파기할 경우 美國은 中共에 더욱 接近할 可能性이 있어서 日本이 소련과 合作한다 하더라도 日本에게는 不利하다는 理由等を 列挙함으로써 반박하고 있다 (註37)

다음에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 때도 美國은 日本에서 없어서는 안될 存在이다. 그 具體的인 例로 日本의 交易面에서 美國이 차지하는 比重은 「表1」이 보여주고 있듯이 中共과 소련에 比較가 되지 않도록 크다. 美國과의 經濟關係는 우선 그 規模에 있어서 中共과 소련에 比較가 안될 뿐만이 아니라 日本商品의 最大市場이라는 點에서도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美國과 歐羅巴國家들과의 緊密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點에 비추어 볼 때 經濟적으로 日本이 生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美國의 方針에 順從안할 도리가 없다. 더군다나 지난 11月 포드 美大統領의 極東巡邦에서 示唆된 바와 같이 莫大한 量의 食糧 및 資源을 美國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으로서는 앞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石油波動에 몇배나 심각한 問題를 惹起할 世界의 食糧危機를 감안할 때 食糧供給이라는 政治的 武器를 保有하고 있는 美國에의 依存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따라서 美國의 韓國에 대한 支援이 終熄되지 않는限 美國의 立場을 어느나라의 立場보다 考慮해야될 日本으로서는 對北韓政策 樹立 및 遂行에 있어서 恣意的 行動에 制約을 받게될 것이다.

5) 大韓民國과의 關係

日本이 對北韓接近에 있어서 考慮해야될 또하나의 主要 要因을 그동안 이룩해 놓은 大韓民國과의 關係이다. 그동안 兩國間에 形成된 關係는 有形 無形의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日本의 對北韓接近이 政經分離에 의한 實利外交라는 前提下에 經濟關係만을 다루고져 한다.

우선 韓國의 外資導入面에서 보면 1973 年에 外資導入現況은 導入確立된 것이 14 億 7 千 6 百萬弗인데 이中 日本에서의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1.4 %를 차지하여 美國의 47.6 %에 比하면 적으나 單位國으로서는 두번째로 큰 比重을 차지한다.^(註38) 다시 이것을 冊目別로 본다면 公共借款에 있어서는 1973 年부터는 IBRD, IDA, ADB로 부터의 도입이 큰 比重을 차지하기 始作하여 公共借款이 前年에 比하여 20 % 減少되어 日本으로 부터의 借款은 11 %에 지나지 않으나 이것은 그동안 美·日에 편중되었던 導入先이 多變化된 데 起因하는 것이지 日本의 比重이 작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商業借款面에 있어서도 1973 年은 美國으로부터의 導入이 前年에 比하여 3 位로 增加하여 59 % 占有하는 反面에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은 오히려 12 % 減少되어 12 %에 지나지 않으나 亦是 日本과의 經濟協力の 比重이 작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註39) 한편, 外國人의 韓國에 대한 投資는 1973 年에 總 382 件, 3 億 1 千 4 百萬弗로써 前年에 比하여 177.3 %가 增加되었으며 特히 注目할만한 것은 投資先이 圧倒的으로 日本에 偏重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即 382 件中 360 件이 日人들이 韓國에 投資를 한 것이다.^(註40) 그리하여

1962년부터 1973년까지의 累積的 外国人投資推移를 보면 美国 27%, 日本 67%, 歐洲各國 3%, 그리고 其他 3%로⁴¹⁾ 日本이 단연 압도적임을 알수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1973年 3월에 韓國政府가 지금까지 借款 為主에서 앞으로는 直合作投資로 外國과의 經濟關係를 振換하고자 外資導入法을 改正한 事實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있어서의 日本人의 投資가 계속 件數에 있어서나 額數에 있어서 增加되고, 따라서 日本과 韓國과의 政府間의 經濟協力은 불라도 民間人 「베이스」의 經濟關係는 계속 유지되리라 보여진다.

한편 韓國의 技術導入의 導入先은 1962년부터 1973年 6月末까지 75% 程度가 日本에서 었다.⁴²⁾ 以上으로 볼때 日本과의 緊密한 經濟關係는 現時點에서 볼때 經濟的 優位에 있는 日本에 韓國이、이끌려 가는 作用도 하게되나 이를 뒤집어 보면 日本으로서도 韓國에서 보는 利害關係때문에 韓國의 立場을 考慮안할수 없게 된다. 더욱이 日本人 經濟界의 保守性⁴³⁾ 때문에 韓國과 연합 日本의 經濟關係는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에의 接近에 抑制要因이 되기도 한다고 보겠다.

實際로 北韓은 共產主義라는 政治體制 때문에 日本으로부터의 民間投資는 不可能하게 되어 있으나 韓國은 政治體制의 類似性 때문에 民間資本을 日本으로부터 끌어 들여올수가 있고 이와같은 要素가 日本의 對韓半島政策樹立 및 遂行에 作用하게 할수 있는것이다. 한 資料에 의하면 1959年 9월부터 1973년까지 韓國은 借款에 있어서 美國으로부터 19億8千9百萬弗 (全借款總數의 39.2%) 日本으로부터 10億7千6百萬弗 (21.2%)을, 그리고 民間投資에

있어서는 美國으로 부터는 1億7千3百萬弗 (29.9%), 그리고 日本으로 부터는 3億6千7百萬弗 (63.4%)을 導入한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日本이 韓國에 投資한 額效는 日本의 全外投資額의 25.5%를 차지한다는點(註44)을 考慮할때 日本의 韓國에 대한 經濟的 利害關係난 음을 알수 있다.

다음에 韓日兩國間의 交易關係를 보면, 「表1」이 보여주고 있듯이 北韓과 日本과의 그것에 比較하면 相對가 안될 정도로 큰 比重을 가지고 있다. 韓國과의 交易額은 계속 增加하고 있으며 특히 1973年은 前年에 比하여 2倍 以上の 交易額의 增加를 나타내었다. 即 1972年에 日本이 韓國에 輸出한 額效는 總 9億8千萬弗이 었던것이 1973年에는 約 18億弗로 뛰었으며 韓國이 日本에 輸出한 額도 1972年의 4億2千6百萬弗에서 1973年에는 12億弗이 되었다. 한편 日本이 北韓에 輸出한 額效는 1972年에 9千3百萬弗, 1973年에는 1億弗이며 北韓이 日本에 輸出한 額效는 1972年에 3千8百萬弗, 1973年에는 7千2百萬弗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1973年의 韓日間의 交易額은 日本과 소련, 日本과 中國과의 交易額 보다도 훨씬 많음을 알수 있다.

交易品目的 內容을 보면, 日本의 對韓國 輸出品目的 中心을 이루는것은 重化學工業品, 機械器具, 輕工業品, 섬유金屬品, 化學品 等이며 輸入品目은 섬유제품, 섬유2次제품, 의류, 식료품, 原料等이다. 한편 日本의 對北韓 主要輸出品目은 重化學工業品, 機械器具, 輕工業品이며 輸入品目은 加工製品, 非金屬鉍鉛 及 同合金, 原料品 (例, 生絲, 鐵燧石) 等이다. 45) 以上の 品目中 특히 우리로서 關心을 끄는것을

韓國의 對日輸出에 있어서 原料品이 차지하는 比率이 1971년에는 28%, 1972년에는 25% 였던것이 1973년에는 8%로 減少되는 반면에 다른 品目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結局 韓國의 商品水準이 비약적인 發展을 가져왔다는 것을 證明하며 이것은 原料供給地로서의 地位가 아니라 貿易에 있어서 日本과 어느程度 競争할수있는 地位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점이 있어서 日本은 차차 競争者로서의 韓國의 地位를 認識하게되고 韓國과의 經濟協力에서 外面하게 되고 심지어는 韓國을 견제하는 態度에 이르게 되지않나 하는 生覺이든나, 如何한 現在까지 韓國이 日本의 手 腕을 立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의 韓國에 대해서 견제보다는 協調해야될 立場은 不變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같은 密接한 韓國과의 經濟關係는 꽤 相當한 時間의 걸쳐 그대로 계속될 것이 며 적어도 가까운 將來에 經濟的 利害關係때문에 日本이 北韓에 對하여 關係가 持統되는것 韓國은 어느면에서 이와같은 關係를 抑止할 수 있는 事態는 可能性이 희박한 것으로 豫見된다. 韓國과 日本의 對北韓接近을 抑制하는 手筈으로 使用할수 있다.

實例을 들자면 1966년에 日本當局은 1200萬弗 상당의 援助의 入口을 許容안마 있었는데 거용當局은 이에대한 보복으로 日本入者의 工務을 北韓에 進出하는 許諾을 爲하여 北韓技術者의 入口을 許容안마 있었는데 거용當局은 이에대한 보복으로 日本入者의 對北韓接近을 抑止하는 手筈으로 使用할수 있다.

公務員의 日本人 企業인에대한 移住禁止, 南韓內 日本人社들에 대한 稅務監査, 在日교포들과 日本社와의 會社設立을 위한 協商中止, 韓人 企業인들의 日本訪問 制限等の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같은 強硬

한 서울의 반발때문에 日本政府는 北韓人技術者들의 入口許可을 취소 하였으며 北韓과 契約을 맺고 있으면서 韓國에도 나와있는 日本會社の 支社들은 韓國으로부터 퇴거 당한바가 있다. 46)

6) 國粹主義的 要素

現在 日本에는 統計數學은 나와 있지 않으나 過去の 「大東亞共榮圈」을 이룩한 日本帝國의 「黃金時代」를 예찬하는 國粹主義的 民族主義者들이 相當한 數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특히, 現在 40代以上の 年齡層에는 이와같은 感情이 매우 짙지 않나 生覺된다. 韓半島에 대한 이들의 態度는 大體로 韓人이라면 멸시하려 들만큼 民族差別的이고 非友互的이라 하겠다. 金大中事件과 民青聯事件에 關聯된 두 日人에 대한 韓國僑判決에 보인 日本人들의 反應은 事態에 대한 冷靜한 分析 以前에 多分히 日本이 韓國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였다는 式의 感情이 많이 作用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처럼 日本社會의 底辺에 자리잡고있는 反韓感情(反朝鮮症)感情은 心理的現象이라서 그 程度를 測定키는 어려우나 韓半島政策樹立에 重要한 作用을 하고 있음은 否認할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反韓作用이 日本으로하여금 北韓에 接近하는데 어떠한 作用을 할것인가는 一律的으로 判斷하기는 또한 困難하나 境遇에 따라서는 커다란 抑制要因이 될수도 있다고 思慮된다. 最近에 있었던 北送日人妻들의 母國訪問을 北韓이 許容치 않은데서 야기된 日本의 与論 같은것은 單面的인 一例라 하겠다.

日本人들의 이와같은 國粹主義的 要素는 勿論 韓國에도 不利하게

作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國粹主義者들은 거의가 다 感性的 思考 思考方式을 갖고 있으므로⁴⁷⁾ 表面에는 잘 부각되지는 않으나 은연중에 日本이 北韓에의 接近을 抑制하는 要因이 되는 것이다. 現在 北韓은 朝總聯에다 莫大한 資金을 投入하여⁴⁸⁾ 支援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在日교포 以外の 日本社會에 北韓御이 期待하고 있는 만큼 影響을 못 미치고 있는⁴⁹⁾ 理由는 바로 日人들의 國粹主義의 感情에 起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 官僚制의 機能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日本에 있어서도 政策決定過程에 대한 正確한 把握, 다시말해서 重要한 政策決定에 있어서 누가 얼마만큼 作用하며 어떠한 要素들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떠한 關係下에 影響을 미치는지를 把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나 一般적으로 말해서 日本의 境遇는 官僚 및 官課出身들이 다른 나라에 比하여 훨씬 더 政策決定에 作用하고 있다는 것이 日本研究學問家들의 共通된 意見이다.⁵⁰⁾

官僚 및 官課出身이 政策決定에 있어서 重要한 作用을 하게되는 理由는 需敎의 影響에 의한 傳統的 民尊民卑思想에 勿論 그 根源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日本政界의 指導者가 되는 經路가 大部分 官界에 投身하여 高級官吏로 은퇴한 後에 政界로 들어가는 것이 慣例처럼 되어있는데도 起因한다.

「다나카 가쿠에이」와 같은 몇몇의 例外的인 存在를 除外하고 大部分의 自民黨의 核心人物들은 거의가 官僚出身이다.

外交政策決定에 있어서 官僚의 役割은 特히 크다고 보여진다. 自民黨의 外務委員會는 過去에 外交官이나 外相의 經驗이 있는 사람들로 構成되며 實際로 日本의 外交政策이 決定되는 곳은 內閣의 官僚와 政策審議會의 官僚 및 政界의 巨物들이다. 51) 따라서 日本의 外交政策이 決定되는 곳의 分派氣는 多分히 保守的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그 理由는 官僚階層은 그 性格上 「크로지에」가 指適하다시피 「自己防禦的」이며, 「自体補強的 均衡 (Self-reinforcing equilibrium)」을 指向하게 되기 때문이다. 52) 官僚出身으로 構成되는 自民黨의 指導層은 앞에서도 指摘했듯이 財界와 깊은 關係마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의 外交政策決定機關의 이와같은 性格은 日本政府가 對北韓政策의 樹立에 있어서도 破格的 接近을 防止하는 結果를 가져오리라 믿어진다. 이점에서 「日本政府의 態度變化는 단면적, 改良的, 現狀維持的」 53) 이라고 한 한 論者의 主張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五. 展 望

지금까지 檢討와 日本의 對北韓接近推進要素와 抑制要素들과 關聯지어 앞으로 日本이 取할수 있는 行動의 展望은 大略 다음과같이 나눌수있다.

<第1案> 北韓을 承認, 北韓과의 國交樹立을 하고 韓國과는 斷交하는 境遇

이와같은 事態가 일어날수 있기위하여는 앞에서 檢討한 要因들 中에서 다음과 같은 變化가 일어나야 될것이다.

(1) 日本의 自民党政權이 選舉에서 敗北하여 社會黨이 共產黨, 公明黨, 民社黨과 아울러 左派聯合政權을 세우는 境遇.

(2) 自衛隊에 의한 共產쿠데타

(3) 韓國과의 극심한 갈등의 發生으로 斷交가 不可避할 境遇

<第2案> 大韓民國과 계속 國交를 維持하면서 北韓과도 國交樹立을 하는 境遇

이 境遇는 두개의 韓國을 公式적으로 認定하는 境遇인데 이를 위한 要因의 變化는

(1) 南北韓의 유엔에의 同時加入

(2) 自民黨의 人氣의 계속적인 低下와 野黨 및 輿論의 壓力增加

(3) 美國의 北韓承認의 確定

(4) 國際舞臺에 있어서의 北韓의 人氣의 上昇

- (5) 中 소 利 解 에 따 른 兩 國 의 北 韓 에 대 한 전 폭 적 지 지
- (6) 日 本 에 대 한 北 韓 의 經 濟 的 實 利 性 의 急 增
- (7) 韓 國 과 의 심 각 한 갈 등 의 發 生 에 따 른 經 濟 策 講 究 의 必 要 性

(8) 韓 國 의 소 련 및 (혹 은) 中 共 과 의 關 係 의 實 務 的 인 改 善
 < 第 3 案 > 北 韓 에 의 接 近 을 中 止 하 고 大 韓 民 國 에 偏 向 하 는 境 遇

- (1) 北 韓 과 의 심 각 한 갈 등 의 發 生
- (2) 中 小 關 係 의 극 심 한 歪 化 및 北 韓 의 偏 重
- (3) 第 2 의 韓 國 動 亂 의 發 발
- (4) 北 韓 의 好 戰 性 에 의 한 國 際 社 會 에 · 있 어 서 의 北 韓 人 氣 의 下 落

(5) 日 本 의 再 武 裝

以 上 의 3 자 지 境 遇 를 놓 고 볼 때 앞 으 로 의 日 本 의 對 韓 半 島 政 策 의 變 化 는 < 第 2 案 이 採 擇 될 可 能 性 이 最 일 많 다 고 하 겠 다. 우 선 第 1 案 부 터 檢 討 하 면 日 本 自 體 內 에 서 政 權 의 變 化 와 韓 國 과 의 關 係 가 斷 交 를 해 야 될 程 度 로 惡 化 되 는 경 우 에 이 案 이 採 擇 될 터 인 데 이 러 한 경 우 란 實 際 로 일 어 나 기 이 러 울 것 이 다. 日 本 의 政 權 이 右 翼 政 權 으 로 바 뀔 경 우 를 想 定 한 (1) 과 (2) 中 에 서 는 自 衛 隊 에 의 한 共 産 主 義 타 란 現 在 의 日 本 의 狀 況 에 서 거 의 어 렵 고 다 만 自 民 黨 政 權 이 앞 으 로 의 選 舉 에 서 過 半 數 의 議 席 을 차 지 하 지 못 할 경 우 는 考 慮 해 볼 價 值 가 있 지 않 나 生 覺 된 다. 그 러 나 비 록 自 民 黨 이 過 半 數 를 차 지 하 지 못 할 境 遇 에 도 野 黨 이 모 두 처 음 부 터 團 合 하 여 聯 合 候 補 를 내 지 않 는 限 自 民 黨 은 選 舉 後 에 公 明 黨 或 은

民社黨과 聯立政權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議會 野黨들의 團合에 의하여 右翼政權이 들어선다 하여도 그 政權이 얼마큼 維持할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如何間 自民黨이 幾만큼 國內政治上의 失政을 저지르지 않는限 가까운 將來에 選舉에 의해서 日本에 左翼政權이 들어서기는 거의 不可能 할것이다. 다음에 韓國과의 斷交를 할 程度로 事態가 惡化될 境遇 또한 숨처럼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文世光을 通하여 본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盟邦끼리의 關係 惡化에는 美國이 積極 介入하려 들기 때문이다.

第3案은 發生될可能性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추진 要件들을 比較해 볼때에 現在로서는 第2案보다 採択될 可能性이 적은것 같다. 우선 「北韓과의 심각한 갈등의 發生」이라는 點에서 볼때, 現在 日本과 北韓은 相互間에 있어서 接近을 意識적으로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될수있으면 회피하려 들고 있으며 설령 갈등이 우발적으로 提起된다하여도 接近이 자연될수는 있으나 接近의 必要性 自体를 포기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中소關係의 惡化는 반드시 北韓의 國際的 位置를 低下시킨다고 볼수는 없으나 最少限 上昇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中소關係가 더욱 惡化되는데도 北韓이 어느 一方에 偏重한다면 日本으로서는 그의 對中共 對소關係때문에 北韓과의 接近에 困難을 느끼게 될것이다.

다음에는 日本의 再武裝問題인데 現在 自民黨内部에서는 核武器의 保有는 自衛를 위하여 不可避하다는 論理에 入詞하여 憲法 第9條를 改正보다는 解釋上의 문제로 取扱하려고 하고 있으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國內적으로 격어야될 政治的 試線과 現在 추진중에

있는 對中共 對소關係 및 美國이 日本의 核武器 보유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때문에 가까운 將來에 核武裝을 公式案件으로 提起할 可能性은 없을것으로 豫測된다. 그러나 實際로는 核武裝을 前提로 日本은 軍備에 神經을 쓰고 있기때문에 이 問題는 앞으로의 日本의 態度決定 乃至 變動에 作用할 가장 重要한 因子로 계속적인 注視를 必要로 한다. 第3案이 거의 第2案 못지않게 可能性이 있어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問題때문이다.

日本이 第2案을 採択하는데도 相當한 時日을 要하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日本이 南北韓을 같이 승인할 경우 우선 당장에 韓美防衛條約과 日美安保條約의 兩者間에 惹起되는 問題 같은것이 提起될 뿐만 아니라 現在로서 구태여 日本이 北韓을 公式적으로 承認할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이다. 南北韓 分斷의 固定化를 바라는 立場과 中共·소련과의 和解 그리고 實利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日本 으로서는 적어도 상당한 시일에 걸쳐 현재 처럼 韓國과의 關係를 유지하면서 北韓과도 계속 교섭을 擴大하는 現在式의 等距離外交의 立場은 그대로 維持할것으로 展望된다. 日本의 北韓에의 接近은 韓國에 有利한것은 決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不利할것도 없다고 생각된다. 日本의 影響으로 北韓의 體制가 바뀐다고는 할수 없겠으나 多少나마 徹底的인 北韓社會에 多元的인 影響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며 日本의 接近으로 말미암아 中共 및 소련의 北韓에 대한 態度, 더 나아가서 韓國에 대한 態度에 變化를 가져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註：1) 이와같은 傾向은 日本政府의 對外政策에 대한 左翼들의 批判의 主調를 이루어 왔으며 심지어 國粹主義的 右翼들도 마찬가지였다. 卽 民族主義的 感情이 이와같은 批判의 核心을 이루었던 것이다.

註：2) 日本의 現行憲法의 制定過程에 대하여는 Robert E Ward "The Origins of the Present Japanese Constitu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56) PP.980-1010, 특히 第9條에 관해서는 PP.1000-1001 을 參照할것.

註：3) 실제로 제9조의 삽입이 失策이었음은 1950年 韓國動亂의 발발을 契機로 日本自衛隊의 派駐를 하나의 可能한 對策으로 檢討하면서 美國은 承認하기 始作하였다.

註：4) 學者들間에 大体로 共通的으로 是認되고 있는 外交政策의 目標들의 優先順位는 1) 國家의 安保, 2) 富의 增加, 3) 自國文化의 宣揚, 4) 國家의 安保, 富의 增加, 自國文化의 宣揚을 계속 推進하는 能力 自體의 培養이다.

註：5) 「샌프란시스코」平和條約 締結의 背景 및 過程에 대하여는 Frederick S, Dunn, Peace-Making and Settlement with Jap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ss, 1965) 을 參照

註: 6) 東亞日報, 1951年 7月6日字

註: 7) 1960年の 美日安保条約改正에 이르기까지의 日本政治의 危險的状況에 관해서는 George R Packard, III, Protest in Tokyo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6) 를 参照할것.

註: 8) 韓日關係의 早稅妥結을 위한 美國側의 仲裁 및 希望은 1961年 11月2日의 韓日會談再開에 대한 美國務省의 聲明 同年 11月 12日의 朴·이계다 會談에 뒤따른 朴·캐네디 會談, 1962年 2月 金鍾泌·이계다 會談에 뒤이은 朴·캐네디·요시다會談, 1963年에 들어서서의 러스크, 오히라 會談, 러스크, 金容植會談, 朴·손승會談과 朴·오노會談, 그리고 1964年 1月의 러스크·이계다會談과 朴·러스크會談과 같은 一連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요미우리」新聞은 韓日會談을 日美韓會談이라고 規定하였다 號苑新聞 1965年 2月 18日

註: 9) 日本經濟界에 있어서 韓日會談妥結을 위한 動向에 關해서는 崔瑞泳, "韓日間을 다리놓은 人物을" 思想界, 1963年 6月 號와 田浚, 假調認까지의 裏面의 特使는 누구? "思想界, 1965年 7月號 参照

註: 10) 國際問題研究所編, 韓日會談에 對한 共產圈反應 (서울: 國際問題研究所, 1965), P. 176

- 註 11) 田口福二, "日韓條約と日本の政変; 青木春彦編, 日韓問題
(東京: 青木書店, 1965), PP.106-7
- 註 ; 12) Hans H. Baerwald, "The Diet and the Japan-Korea
Treaty," Asian Survey, Vol. 8, No. 12 (December 1968)
PP.951-9 参照
- 註 ; 13) 田口福二, 前掲書, P.104
- 註 ; 14) 한국일보, 1974.12.15 P.3
- 註 : 15) 中ソ紛争의 初期의 發展에 대한 條約的 檢討로는 Donald S.
L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61 (New York:
Atheneum, 1967) 을 参照,
그 歷史的 背景을 위해서는 O. Edmund Clubb, China and
Russia: The Great Game (New York: Columbia Univer-
sity Press, 1971) 을 参照할것.
- 註 ; 16) 東亞日報, 1970年 11月 14日字, P.1
- 註 ; 17) 한국일보, 1971年 11月 23日, P.2; 東亞日報, 1972年
1月 7日字, P.1; 한국일보, 1972年 1月 15日字, 参照
- 註 ; 18) 統一朝鮮年鑑, 1965-1966, P.69
- 註 ; 19) Byung Chul g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9), P.190

- 註 ; 20) Ibid, P.191
- 註 ; 21) Robert A. Scalapino and Juunosuke Masumi, Parties and Politics in Contemporary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2) PP.80-81 과 Robert E Ward, Japan's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J: Preutice-Hall Inc, 1967), PP.74-75 參照
- 註 ; 22) Scalapino and Masumi, op. cit., P.80
- 註 ; 23) Nathaniel B- Thayer, How the Conservatives Rule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Chapter II. 參照
- 註 ; 24) 나타니엘 세이어, "日本外交의 두가지 形態" 朴在圭編, 東亞問題의 平和와 安保 (慶南大學 東亞問題研究所, 1974), P.227
- 註 ; 25) Thayer, op. Cit., Chapter III, and Gerald L. Curtis, Election Campaigning Japanese Style, PP-126-152 參照
- 註 ; 26) Thayer, Loc. Cit.,
- 註 ; 27) 이 問題와 關聯하여서는 Gerald L. Curtis, "The 1969 General Election in Japan," Asian Survey Vol X, No

10 (October 1970) PP.859-71을 參照 또한 Thayer,
op. Cit, Chapter V을 參照

註; 28) 具體的 統計를 위해서는 Curtis, Election Campaigning
Japanese Style, P.112 or Joji Watauki, "Patte-
rus of Politics in Present Day Japan," Segmon
Lipset and Stein Rokkan (ed),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Free Press, 1967), PP.
447-66

註; 29) 조선일보 1974年 10月 15日字 및 京鄉新聞, 1974年
11月 29日字 參照

註; 30) 세이어, 前揭書, PP.230 and 236

註; 31) 이와같은 概念은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南北間의 平和共存
이 日本에게 有利하다는 前駐韓日本大使 가네야마 (金山政
英)의 主張에도 如實히 나타난다. 金山政英, "日本外交
의 基本姿勢" 朴在圭編, 前揭書, P.202

註; 32) 吳其坪, "日本の 外交戰略속에서의 韓半島" 高麗大學校 亞細
亞問題研究所 創立 17週年紀念學術會議 發表論文(1974)
P. 15

註; 33) 柳世熙,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의 對南韓 適用可能性診斷"
国土統一院(1974), P.5

註; 34) 一例을 들자면 이미 앞에서 指稱한바 있으나 日本駐屯聯合軍最高司令部에서 現行 憲法의 草案을 마련하였고 其他 制度的改竊을 美國式으로 推進하여 준것 같은것을 들수가 있을 것이다.

註; 35) 日本의 核武裝을 反對하는 立場은 비록 日本이 核武裝을 하더라도 地域의 협소성 때문에 實用만 들고 오히려 中共과 소련으로 하여금 動搖케 만들어 平和維持에 阻害가 된다는 것이며 贊成하는 立場은 現代的인 安謀의 概念에 있어서 是 당장에 얼만만한 性能의, 얼만큼 많은 武器를 가지고 外部의 攻擊에 대하여 얼만큼 커다란 報復能力을 가지고 있느냐가 問題이지 武器를 소유할수있는 存在力, 即 國力 및 經濟力만 가지고는 安謀를 유지할수 없으므로 한개의 原子彈이라도 갖는것이 안 갖는것보다 勢力均衡에 의한 平和維持에 도움이 된다는 主張이다.

註; 36) 吳其坪, 前揭書, P. 25

註; 37) 金山啟英, 前揭書, PP. 198-99

註; 38)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經濟年鑑, 1974, P. 95

註; 39) Ibid., PP. 96-97

註; 40) Ibid., P. 97.

註; 41) Loc. Cit.

註 ; 42) Ibid., P.99

註 ; 43) 日本經濟界의 保守性 및 이와같은 保守性이 如何히 組織的으로 作用하는가에 關해서는 Gerald L. Curtis, "Organizational Leadership in Japan's Business Community,"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26, No.2 (1972) PP. 179-85 를 參照

註 ; 44) 東亞日報, 1973年 12月 25日 P.2

註 ; 45) 日本 通商産業省編, 昭和 49年度版 通商白書 (各論), 東京:大藏省 1974 參照

註 ; 46) Byung Chnl Koh, op.Cit., PP.195-96

註 ; 47) 脫右가 아닌 國粹主義者들이 있겠느냐고 反問할수도 있겠는데, 이와 關聯된 討論으로는 Seyrnom martin Lipset, Political man (Anchor Books, 1963), Chapter 5 ("Fascism-Left, Right, and Center) 參照할것.

註 ; 48) 1957年 4月부터 1974年 4월까지 北韓이 「교육원조 및 장학금」 條로 朝總聯에 送金한 額數만도 約 506 億圓 (日貨)에 달한다고 한다. 北韓, 1974年 6月號, P.195

註 ; 49) 現在 在日교포의 60% 程度가 朝總聯을 지지하는것으로 한 研究는 지적하고 있다. Koh, op.Cit., P.191

註 ; 50) Akira Kubota, Higher Servants in Postwar Japan,

Chapter 7 參照

註：52) 세이어, 前掲書, P.235

註：52) Michel Crozier, The Bureaucratic Phenomen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P.187. ff.

註：53) 세이어, 前掲書, P.233

